

誠의 內·外向性에 관한 고찰

朱賢哲*

目次

I. 서론	1. 內向的 觀點에서의 誠
II. 誠의 概觀	2. 外向的 觀點에서의 誠
1. 無極·太極·理·性·心	IV. 대순사상의 誠觀
2. 誠과 上述 용어와의 관계	1. 內向的 觀點에서의 誠
3. 誠의 의미와 특성	2. 外向的 觀點에서의 誠
III. 유교사상의 誠觀	V. 誠의 현대적 의미
	VI. 결론

I. 서론

대순사상에서는 수도의 3요체로서 성(誠)·경(敬)·신(信)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3요체 중 誠이다. 일반적으로 誠은 성실(誠實)과 동의어이며, 정성(精誠)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다는 의미이다. 정성(精誠)이란 어떤 일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나 태도를 말한다. 속담에 '정성을 들였다고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 한 일이라도 끝까지 긴장하고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 말은 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성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誠之又誠)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이 산이나 주변 들판에 있는 바위에 풀이 난 것을 보고 연약한 풀이 어떻게 단단한 바

* 문학박사

위를 뚫고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극 정성으로 해나가면 무엇이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誠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誠은 핵심적인 용어로 인식된다. 그래서 본 논자는 誠의 특성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하여 유교사상의 관점과 대순사상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다루려고 한다. 특히 誠은 『중용』에 이르러 중심사상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사상의 성관(誠觀)을 논함에 있어 『중용』과 주자(朱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였다. 誠의 내향적 관점이란 개인적 차원에서의 수도와 공부 방법 및 실천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외향적 관점이란 개인적 수도와 공부의 실천으로 인하여 타인·사회·국가·세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誠의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誠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용어들, 이를테면 무극(無極), 태극(太極), 도(道), 이(理), 성(性) 등에 대해서 간략한 다음, 誠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誠이 현대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서술될 것이다.

II. 誠과 다른 용어와의 관계

1. 無極 · 太極 · 理 · 性 · 心

誠의 의미와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誠과 관련성이 있는 용어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무극(無極), 태극(太極), 이(理)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태극은 구극적 존재로서, 형체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한 무(無)와 같은 존재이다. 태극이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태극을 理로 보기 때문이다. 주자는 “태극은 단지 천지만물의 理이다. 천지에 있다고 말하면 곧 천지 가운데에 태극이 있고, 만물에 있다면 만물의 가운데에 각각 태극이 있다. 아직 천지가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理가 있다. 움직여서 양(陽)을 낳는 것도 理요, 고요하여 음(陰)을 낳는 것도 理

다.”¹⁾ 이것은 태극과 理가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태극이 만물에 내재(內在)하고 만물보다 선재(先在)하는 것처럼 理 또한 동일하다. 사람과 사물이 생길 때 하늘이 理를 부여하며, 아직 천지가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理가 존재한다. 또한 “태극은 오행과 음양의 理를 다 가지고 있으니 공허한 것이 아니다”,²⁾ “천하의 理는 지극히 허(至虛)한 가운데 지극히 실(至實)한 것이 존재하고, 지극히 없는 가운데 지극히 있는 것이 존재한다”³⁾고 한다. 즉, 태극과 理는 무(無)와 같은 성격을 갖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태극과 理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태극도설』에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無極而太極)’라는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자는 “무극이면서 태극이라는 말은 태극 위에 별도로 무극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태극이 어떤 사물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⁴⁾라고 하여, 무극과 태극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동일 존재이며 동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무극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방소(方所)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사물이 존재한 이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음양의 밖에도 존재하고 음양의 가운데서도 작용하며, 전체를 관통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이 없어 처음부터 소리나 냄새 그림자 메아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⁵⁾ 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곧 태극은 하나의 물건과 같아져서 만화(萬化)의 근본이 될 수 없다.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은 공적(空寂)에 빠져 만화의 근본이 될 수 없

1) 『朱子語類』 上, 권1, 「理氣上·太極天地上」

“太極 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 各有太極 未有天地之善 畢竟是先有此理 動而生陽 亦只是理 靜而生陰 亦只是理”

2) 앞의 책 上, 권94, 「周子之書·太極圖」

“太極 是五行陰陽之理皆有 不是空底物事”

3) 앞의 책 上, 권13, 「學7·力行」

“天下之理 至虛之中 有至實者存; 至無之中 有至有者存”

4) 앞의 책 下, 권94, 「周子之書·太極道」

“所謂無極而太極 非謂太極之上 別有無極也 但言太極非有物耳”

5) 『朱子大全』 上, 권36, 「答陸子靜」

“所以謂之無極 正以其無方所無形狀 以爲在無物之前 而未嘗不立於有物之後 以爲在陰陽之外 而未嘗不行乎陰陽之中 而爲通貫全體無乎不在 則又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

다”⁶⁾고 설명하고 있다.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無)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무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극이라고만 하고 태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와 같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생길 수 없다. 이럴 경우 태극은 만물변화와 생성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극과 함께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한 것이다. 주자가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이 태극을 하나의 형상 있는 물건으로 간주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극을 말하면서 그것이 理임을 말한 것일 뿐이다”⁷⁾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한 것은 理를 가리키는 것이지, 태극 위에 별도로 무극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상에서 볼 때 무극은 理가 무형이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태극은 理가 음양·오행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즉, 무극은 理가 사물을 초월한 측면을 말하고 태극은 理가 사물과 관련된 측면을 말한다.⁸⁾

그러면 이(理)와 성(性)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용』에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한다”⁹⁾는 말이 있다. 주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것이 사람의 성이 되며,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하여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을 일컬어 命이라 한다고 말한다.¹⁰⁾ 다시 말해서 命은 자연·필연으로 만물에게 부여된 것이고, 성은 자연·필연으로 창출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것의 완전체이다. 그는 성즉리(性即理)의 입장에서 命을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의 근원의 理라 하고, 성을 인륜도덕의 근거의 理로 받아들인다. 즉, 命을 존재의 理, 성을 당위의 理로 받아들이고 있어, 理는 존재와 당위를 관철한다. 그래서 천도로 말하면 원(元)·형(亨)·이(利)·정(貞)이 되고, 사계절로

6) 앞의 책 上, 권36, 「答陸子靜」

“不言無極 則太極同於一物 而不足爲萬化根本 不言太極 則無極淪於空寂 而不能爲萬化根本”

7) 「朱子語類」下, 권94, 「周子之書·太極圖」

“太極而無極 蓋恐人將太極做一箇有形狀底物看 故又說無極 言只是此理”

8) 오하마 아키라(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서울: 예문서원 1997), 73-79쪽 참조

9) 「中庸章句」, 1章, “天命之謂性”

10) 「中庸或問」, 302쪽

말하면 봄·여름·가을·겨울이 되며, 인도(人道)로 말하면 인(仁)·의(義)·예(禮)·지(智)가 되고, 기후로 말하면 따뜻함(溫)·서늘함(涼)·건조함(燥)·습함(濕)이 되며, 방향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이 된다.¹¹⁾ 이것 역시 理가 존재와 당위를 관통함을 보여 주는 말이다. 이렇게 주자는 ‘하늘이 命한 것을 性이라고 한다’는 언명을 이기(理氣)의 체계로 추가함으로써, 性이 존재와 당위를 관철하는 보편적·절대적·자연적·필연적인 理라고 인식한다. 보편적·절대적·자연적·필연적인 理로서 性은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 천하에 性 없는 것은 없으니, 대개 사물이 있으면 性이 있고, 사물이 없으면 性이 없다. 따라서 性이 있는 것은 사람과 사물이 동일하다. 性은 사람과 사물의 근원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물에 性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성(人性)과 사물의 성(物性)에는 차이가 있다. 인성은 밝고 어두운(明暗) 반면, 물성은 치우치고 막혀(偏塞) 있다. 어두운 것은 밝게 할 수 있지만, 치우치고 막힌 것은 통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성과 물성의 서로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인성이라고 해서 모두 어둔 데서 밝은 데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선(不善)한 것이 습관이 되어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은 본래의 선성(善誠)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²⁾

다음으로 성(性)과 심(心)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자는 “心은 사람의 신명(神明)이다”¹³⁾, “心은 사람의 지각이다”¹⁴⁾, “心은 사람 몸의 주체가 된다”¹⁵⁾고 인식하기 때문에, 性을 心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인성만을 한정해서 말한다. 性은 형체와 그림자는 없고, 단지 이 心 가운데 있는 도리일 뿐이다. 즉, 性은 心에 내재한 理이다. 그는 性과 心을 태극과 음양에 비교하여, “性은 태극과 같고 心은 음양과 같다. 태극은 단지 음양의 가운데 있고, 음양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극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태극이고, 음양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음양이다. 생각하건데, 性과 心은 역시 그러하니,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¹⁶⁾ 태극과 음양이

11) 『朱子語類』 下, 권68, 「易5·乾上」 참조

12) 오하마 아키라(이형성 옮김), 앞의 책, 161-4쪽 참조

13) 『孟子集註』, 「盡心」 上, “心者 人之神明”

14) 『朱子大全』 中, 권65, 「尚書·大禹謨」, “心者 人之知覺”

15) 앞의 책 中, 권67, 「觀心說」, “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16) 『朱子語類』 上, 권5, 「性理2·性情心意等名義」

개념적으로 볼 때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性과 心도 마찬가지로다. 性은 心의 가운데 존재하며 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性과 心은 일체불리(一體不離)이다. 그러나 性은 性이고 心은 心이다. 性과 心은 엄격히 구별된다. 心과 性이 ‘하나인 듯하면서 둘이고, 둘인 듯하면서 하나이다’라는 것보다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心과 性 양자의 불리(不離) 관계를 암시해 준다. 이것은 구별하면서 통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心과 性은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心은 선(善)과 악(惡)이 있으나, 性은 불선(不善)이 없기 때문이다. 心의 理가 性이지만 心이 그대로 性은 아니다. 心은 性의 理가 있는 장소이다. ‘性의 理’라고 하는 것은 理로서의 性을 의미하며, 본연지성(本然之性), 성즉리(性卽理)에서의 性을 말한다. 곧 心은 理로서의 性, 본연지성, 성즉리인 性이 있는 장소이다.¹⁷⁾ 주자는 성(性)의 상대적 개념인 정(情)을 추가하여 心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性은 情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고, 心은 성정(性情)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있어야 하는 理가 性이고, 움직이는 것이 情이며, 주재하는 것이 心이다. 대개 心과 性은 하나인 듯하면서 둘이고, 둘인 듯하면서 하나이다.”¹⁸⁾ 性은 情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라는 말은 情은 性의 움직임이라는 말이다. 즉, 움직이기 이전(未發)의 본성이 性이고, 움직인 이후(已發)의 상태를 情이라 한다. 心은 이러한 性과 情을 통합하고 주재함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心과 性의 관계는 하나인 듯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다. 性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善)이라면 악(惡)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주자는 이러한 모순점을 해명하기 위해 性을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하고 있다. 천명지성은 본래의 性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질지성은 기(氣)의 영향에 의해서 본래의 성(天命之性)이 훼손되어 기질의 치우침이 생기는 것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 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離陰陽也 然至論太極 自是太極 陰陽自是陰陽 惟性與心亦然 所謂一而二 二而一也”

17) 오하마 아키라(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 (서울: 예문서원 1997), 168-9, 215쪽 참조

18) 『朱子語類』 上, 권5, 「性理2·性情心意等名義」

“性對情言 心對性情言 合如此是性 動處是情 主宰是心 大抵心與性 似一而二 似二而一”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천명지성은 氣와는 분리된 理를 말하며, 기질지성은 氣와 합일한 理 즉, 이기혼일(理氣混一)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기질지성은 학문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치우침이 없는 근본 즉, 본래의 性을 회복할 수 있다.

2. 誠과 上述 용어와의 관계

성(誠)과 앞서 서술한 용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誠과 성(性)의 관계를 알아보자. 『중용』에 “誠이란 하늘의 도(道)요, 성실(誠實)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라고 하였다. 또 “誠은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를 이룸은 인(仁)이요, 만물을 이룸은 지(智)이다. 이는 性의 덕(德)이니, 내외를 합한 도이다. 그러므로 제 때에 쓰는 데 마땅한 것이다”¹⁹⁾ 이것은 자연계의 본체존재(本體存在)인 誠이 인간에게 부여된 그 자체가 인성(人性)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성자 천지 도야(誠者 天之道也)’에서의 誠은 이러한 의미에서 性의 실체인 동시에 道의 실리(實理)라 해도 무방하다. 이 誠은 우주만유의 실상이요 정신이요 활력이요 실리로 ‘자성명 위지성(自誠明 謂之性)’이란 개념과 연관지워 생각해 볼 때, 만유의 본체인 천(天)의 덕(德)이 원(元)·형(亨)·이(利)·정(貞)을 바탕으로 일체를 생성·화육시키는 천도를 형성하는 것이 誠이며, 진실무망한 가운데 부지무식한 천도의 작용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천도의 정리로서 誠은 性의 형성적·작용적 본질개념이며, 우주 자연의 존재론적 본체이자 당위론적 본체개념이라 할 수 있다.²⁰⁾ “오직 천하의 지극한 誠이라야 그의 性을 다할 수 있다. 그 性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만물의 性을 다할 수 있고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²¹⁾고 하였다. 여기서 誠은

19) 『中庸章句』, 25章

20) 李南久, 「誠의 政治理念化的 意義에 關한 一研究(前)」, 『안동교육대학 논문집』 (안동교육대학, 1971), 285쪽 참조

21) 『中庸章句』, 22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

바로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誠之者)은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 수교지위교(修道之謂教)라 할 수 있다.²²⁾ 그리고 지성(至誠)이 곧 진성(盡性)이라 하였으므로 誠이 곧 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誠은 모든 존재와 운동에 일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서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과 관계를 맺는 우주정신인 태극과 동일시된다. 이 우주정신은 모든 질료의 존재와 운동을 선(善)으로 인도하며, 모든 선의 근원적인 선이 될 뿐만 아니라 선 그 자체이기도 하다. 태극은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선하다. 태극이 지선(至善)이라는 점에서도 誠은 태극과 동일하다. 또 주자는 “자신을 성실케 하는 것에 道가 있으니 선에 밝지 않으면 몸을 성실케 하지 못한다”²³⁾, “성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선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다”²⁴⁾ 태극이 지극히 선한 理이듯이,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선을 굳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誠 자체는 절대선(絕對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태극과 誠은 일치되는 것이다.

주자는 “誠이라는 것은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하늘의 이치(天理)가 본디 그러한 것이다”²⁵⁾라 하여,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다는 면에서 誠과 천리(天理)는 동일하다. 또 “誠은 만물의 마침과 시작이다. 誠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⁶⁾, “誠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⁷⁾ 즉 誠이라는 것은 만물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²⁸⁾ 理에 대해서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진실한 理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理를 얻은 후에야 이 사물이 있다”²⁹⁾고 한다. 이것은 우주만물의 생성과 존재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誠과 理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또 앞서 살펴본 대로

之性則可以贊天地化育 可以贊天地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22) 앞의 책, 1章 참조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은 ‘하늘이 命하신 것을 性이라 한다’,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는 ‘성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한다’,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는 ‘도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는 의미이다.

23) 앞의 책, 20章, “誠身 有道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24) 앞의 책, 20章,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25) 앞의 책, 20章, “誠者 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26) 앞의 책, 20章,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27) 앞의 책, 20章, “誠者 自成也”

28) 앞의 책, 20章, 朱子註, “言誠者 物之所以自成”

29) 앞의 책, 20章, 朱子註, “天下之物 皆實理之所爲 故必得是理 然後 有是物”

이 理는 태극과 동일 개념으로 드러난다. “태극은 단지 하나의 理라는 글자이다”,³⁰⁾ “태극은 단지 천지만물의 理이다. 천지에 있다고 말하면 곧 천지 가운데에 태극이 있고, 만물에 있다면 만물의 가운데에 각각 태극이 있다. 아직 천지가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理가 있다. 움직여서 양(陽)을 낳는 것도 理요, 고요하여 음(陰)을 낳는 것도 理다.”³¹⁾ 이러한 것은 태극과 理가 동일한 것임을 말해준다. 대순사상에서 “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다”³²⁾,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지의 道이고,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람과 신의 道이다”³³⁾, “道란 끊임이나 쉬이 없고 그 형태나 자취가 없으며, 소리도 냄새도 없다. 또 道란 거짓이 없고 편벽됨이나 사사로움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진리와 같다”³⁴⁾고 한다. 또 『중용』에서 지극한 誠은 쉬는 것이 없는 것이며,³⁵⁾ 진실무망(眞實無妄)하고 사사로움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대순사상과 『중용』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점은 誠과 道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誠 그 자체는 우주만물의 생성근거인 태극(太極)·도(道)·이(理)와 동일시되며, 태극(太極)·도(道)·이(理)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3. 誠의 의미와 특성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誠이 중심개념으로 대두된 것은 『중용』에 이르러서다. 물론 ‘誠’자가 『중용』 이전에 나온 『상서(尙書)』, 『주역(周易)』,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참으로’, ‘진정’, ‘진실하게’ 등 행위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되는 정도였다. 특히 『맹자』에 誠이라는 글자 자체는 전부 22번이 나오는데, 그 중 20번은 부사로 쓰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고, 다음에 언급될 두 번만이 『중용』과 유사한

30) 『朱子語類』上, 권1, 「理氣上·太極天地上」, “太極 只是一箇理字”

31) 앞의 책 上, 권1, 「理氣上·太極天地上」

“太極 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 各有太極 未有天地之善 畢竟是先有此理 動而生陽 亦只是理 靜而生陰 亦只是理”

32) 『대순지침』, 18쪽

33) 『전경』, 교운 2장 41절, 運合呪, “元亨利貞天地之道 仁義禮智人神之道”

34) 『대순지침』, 91-2쪽 참조

35) 『中庸章句』, 26章, 참조, “至誠 無息”

사상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맹자』 안에 『중용』 처럼 사상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맹자는 “만물이 모두 내 안에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성실(誠)하게 되면, 즐거움이 더 클 수 없을 것이다. 서(恕)를 힘써 행하면, 인(仁)을 구하는 데에 그보다 더 가까운 길은 없을 것이다”³⁶⁾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誠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그 충실함을 남에게까지 확대하여 그대로 실천하라는 공자의 충서(忠恕)를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맹자는 “성실 그 자체는 하늘의 道요 성실해지려고 생각하는 것(思誠者)은 사람의 道이다”³⁷⁾라고 하여, 천도(天道)의 성적(誠的) 특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용』에서는 誠이 그 중심사상으로 대두된다.

『중용』에서 “誠은 만물의 끝과 시작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한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성실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것이다”³⁸⁾라고 하여, 誠을 우주만물의 존재근거이자 본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誠은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일관성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誠이 아니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또 “誠 그 자체는 하늘의 道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道다”³⁹⁾라고 하여 천도(天道)의 본질을 誠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자는 “誠이라는 것은 진실되어 망령됨(眞實無妄)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하늘의 이치(天理)가 본디 그러한 것이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능히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지 아니하여 그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⁴⁰⁾라고 하였으며, “모든 사물은 반드시 이 理를 얻어서 존재하

36) 『孟子』, 「盡心」上,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37) 앞의 책, 「離婁」上

“居下位而不獲於上 民不可得而治也 獲於上有道 不信於友 弗獲於上矣 信於友有道 事親弗悅 弗信於友矣 悅親有道 反身不誠 不悅於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其身矣 是故誠者天之道也 思誠者人之道也”

38) 『中庸章句』, 25章

“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 誠者非自誠己而已也 所以成物也”

39) 앞의 책, 20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40) 앞의 책, 20章, 朱子註

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理를 얻은 뒤에야 이 사물이 있는 것이니, 얻은 바의 理가 이미 다하여 없어진다면 이 사물도 또한 다하여 없어진다”⁴¹⁾고 하였다. 여기서 주자는 우주만물이 존재하는 근거가 천리(天理)에 있다고 하여, 사실상 천리와 誠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중용』에서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쉬는 것이 없는 것이다”⁴²⁾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주자는 “이미 헛되고 거짓이 없으면 스스로 간단(間斷)이 없는 것”⁴³⁾이라고 해석하였다. 또 그는 “誠은 실(實)이 있는 것이고, 誠은 理이다”⁴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誠이란 모든 존재에게 일관성과 진실성을 부여해 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

誠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무망(無妄)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주역』에 “무망(無妄)은 지성(至誠: 지극히 성실함)이니 지성(至誠)은 천도(天道)이다. 하늘이 만물을 화육(化育)하여 낳고 낳아 다하지 않아서 각기 생명(性命)을 바르게 함이 무망(無妄)이니, 사람이 무망(無妄)의 도에 합하여 이른바 ‘천지와 더불어 덕이 합한다’는 것이다(...) 무망(無妄)은 천도(天道)이다(...) 올바름(真正)을 잃으면 망(妄)이 된다. 비록 사심(邪心)이 없더라도 만일 정리(正理)에 합하지 않는다면 망(妄)이니, 바로 사심(邪心)이다”⁴⁵⁾라고 하였고, “무망(無妄)은 실리자연(實理自然: 진실한 이치대로 하여 자연스러움)을 이른다. 『사기(史記)』에는 ‘무망(無望)’으로 되어 있으니,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없이 얻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뜻이 또한 통한다”⁴⁶⁾라고 하였으며, “우레가 하늘 아래에 행해서 음양이 서로 화하여 서

“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誠之者未能眞實之無妄也 而欲其眞實無妄之謂人事之當然也”

41) 앞의 책, 25章, 朱子註

“天下之物 皆實理之所爲 故必是理然後 有是物 所得之理既盡 則是物亦盡而無有矣”

42) 앞의 책, 26章, “故至誠無息”

43) 앞의 책, 26章, 朱子註, “既無虛假 自無間斷”

44) 『朱子語類』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誠只是實 又云: 誠是理”

45) 『周易』, 「無妄」卦, 「程傳」

“無妄者 至誠也 至誠者 天之道也 天地化育萬物 生生不窮 各正其性命 乃無妄也 人能合無妄之道 則所謂與天地合其德也... 失真正則妄也 雖無邪心 苟不合正理則妄也 乃邪心也...”

46) 앞의 책, 「無妄」卦, 「本義」

“無妄 實理自然之謂 史記作無妄 謂無妄所期妄而有得焉者 其義亦通”

로 부딪쳐 소리를 이루니, 이에 숨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놀라게 하고 싹을 진동시켜 만물을 발생해서 부여(賦與)하는 바가 크고 작은 것과 높고 낮은 것이 각기 성명(性命)을 얻어 어그러지고 망령됨이 없으니, 이는 물건마다 무망(無妄)을 준 것이다(...) 천도가 만물을 낳아 각기 그 성명(性命)을 얻어 망령되지 않으니, 왕이 천도를 체득(體得)하여 백성들을 양육해서 곤충과 초목에 이르기까지 각기 마땅함을 얻게 함은 바로 천시(天時)에 합하여 물건을 기르는 道이다”⁴⁷⁾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지성(至誠) 즉, 무망(無妄)은 천도로서 모든 존재들에게 일관성과 질서정연한 조화와 생성을 가능케 해 준다.

Ⅲ. 유교사상의 誠觀

1. 내향적 관점에서의 誠

내향적 관점에서의 성관(誠觀)은 誠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 자신의 공부나 수양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수양의 목표는 성인(聖人)에 이르는 것이다. 『중용』은 성인에 대해서 “誠 그 자체는 하늘의 道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道다. 성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道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고서도 알아서 종용(從容)히 道에 맞으니, 이것이 성인이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선(善)을 선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다”⁴⁸⁾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이란 다름 아닌 천도(天道)인 誠을 갖춘 사람이다. 誠이라는 것은 진실하여 망령됨(眞實無妄)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본래 하늘의 이치(天理)가 그러한 것이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능히 진실하고 망령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망령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성인(聖人)의 덕은 혼연(渾然)한 하늘의 이치가

47) 앞의 책, 「無妄」卦, 「程傳」

“雷行於天下 陰陽交和 相薄而成聲 於是 驚蟄藏 振萌芽 發生 萬物 其所賦與 洪纖高下 各正其性命 無有差妄 物與無妄也... 天道生萬物 各正其性命而不妄 王者體天之道 養育人民 以至昆蟲草木 使各得其宜 乃對時育物之道也”

48) 「中庸章句」, 20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기 때문에,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어 생각하고 힘쓰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종용히 道에 맞으면 또한 하늘의 道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인욕(人欲)의 사사로움이 있어서 그의 덕이 다 진실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善)을 택한 후에야 좋을 밝게 알 수 있고, 힘쓰지 않고 道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굳게 잡은 후에야 몸을 성실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사람의 道이다.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아는 것(生而知之)이며, 힘쓰지 않고도 道에 맞는 것은 편안히 행하는 것(安而行之)이다. 선을 택함은 배워서 아는 것(學而知之) 이하의 일이며, 굳게 잡음은 이롭게 여겨 행하는 것(利而行之) 이하의 일이다.⁴⁹⁾

성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선택하여 굳게 지켜야(擇善而固執) 한다. 이것이 誠에 도달하기 위한 즉, 성인이 되는 길이다. 『중용』은 이러한 공부(工夫)의 규범화된 방법으로서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慎思)·명변(明辯)·독행(篤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널리 배우고, 살펴서 물으며, 삼가서 생각하며, 분명하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⁵⁰⁾ 이것은 성실히 하는 조목(條目)이다. 배우며 물고, 생각하며 분별하는 것은 선을 가려서 알고 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것이다. 독실히 행하는 것은 굳게 잡아서 어진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롭게 행하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이 다섯 항목 중 하나만 빠져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⁵¹⁾ 여씨(呂氏, 呂大臨)는 군자(君子)가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군자가 배우는 까닭은 기질(氣質)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뿐이다. 德이 기질을 이기면 어리석은 자가 밝음에 나아가고, 유약한 자가 강함에 나아갈 수 있거니와, 능히 이기지 못하면 비록 배움에 뜻을 두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밝아지지 못하고, 유약한 자가 서지 못할 것이다. 똑같이 선하고 惡함이 없는 것은 性이니, 사람이 동일한 바요, 어둡고 밝으며 강하고 약함을 받은 것이 같지 않음은 재질(才質)이니, 사람이 각기 다른 바이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음을 회복하고 다름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아름답지 못한 자질로 변

49) 앞의 책, 20章, 朱子註 참조
 50) 앞의 책, 20章 참조
 51) 앞의 책, 20章, 朱子註 참조

화시키어 아름다워지기를 구하면, 공부를 백 배로 하지 않으면 이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쓰지 않고 경박한 학문으로써 혹은 하기도 하고 혹은 중단하기도 하면서, 그 아름답지 못한 자질을 변하게 하다가 능히 변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면, 타고난 자질이 아름답지 못함은 배워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스스로 포기함에 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질지 못한 것이 심한 것이다”⁵²⁾라고 말한다. 그래서 군자가 일단 학문에 뜻을 두면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주자는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운다면 알지 않고서는 그만 두지 않으며,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묻는다면 알지 않고서는 그만 두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한다면 알지 않고서는 그만 두지 않으며,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한다면 알지 않고서는 그만 두지 않으며,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한다면 독실하지 않고서는 그만 두지 않으며, 남이 한 번에 잘하게 되면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잘하게 되면 나는 천 번을 하는 것이다”⁵³⁾라고 말한다. 확실한 앎, 확실한 생각, 확실한 분별, 확실한 실천을 강조한 말로써, 이것이 가능하기 전에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되며, 여기엔 반드시 정성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 방법을 잘 수행한다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이며, 비록 유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⁵⁴⁾

「중용」에는 수양의 방법과 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달덕(三達德)과 오달도(五達道)이다. “천하의 달도(達道, 공통된 도)가 5가지이고,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3가지이다.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곤제(형

52) 앞의 책, 20章, 朱子註

“呂氏曰 君子所以學者 爲能變化氣質而已 德勝氣質 則愚者可進於明 柔者可進於強 不能勝之 則雖有志於學 亦愚不能明 柔不能立而已矣 蓋均善而無惡者 性也 人所同也 昏明強弱之稟 不齊者 才也 人所異也 誠之者 所以反其同而變其異也 夫以不美之質 求變而美 非百倍其功 不足以致之 今以鹵莽 滅裂之學 或作或輟 以變其不美之質 及不能變 則曰 天質不美 非學所能變 是 果於自棄 其爲不仁 甚矣”

53) 앞의 책, 20章

“有弗學 學之 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54) 앞의 책, 20章 참조

제)와 봉우를 사귀는 5가지는 천하의 달도(達道)이고, 지(智)·인(仁)·용(勇)이 3가지는 천하의 달덕(達德, 공통된 덕)이니,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⁵⁵⁾라고 한다. 달도(達道)라는 것은 천하와 고금(古今)에 함께 행하여야 할 길이다. 『서경(書經)』에 이른바 오전(五典)인데, 맹자의 이른바 오륜(五倫)이다. 즉,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고(君臣有義),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夫婦有別), 장유간에는 차례가 있고(長幼有序), 친우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는 것이다. 지(智)는 이것을 아는 것이며, 인(仁)은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고, 용(勇)은 이것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을 달덕(達德)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와 고금에 함께 얻은 바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일(一)은 곧 誠일 뿐이다. 달도(達道)는 비록 사람이 똑같이 행하는 바이나 이 3가지 德이 없으면 이것을 행할 수 없고 달덕(達德)은 비록 사람이 똑같이 얻은 바이나 한가지라도 성실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인욕(人欲)이 사이에 끼어 德다운 德이 아닐 것이다. 정자(程子)도 이른바 誠이란 것은 다만 이 3가지를 성실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이외에 다른 誠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⁵⁶⁾ 공자는 이 3가지 달덕(達德)에 대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智)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어짐(仁)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맹(勇)에 가까운 것”⁵⁷⁾이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옳다 하고 찾지 않으며, 스스로 사사로이 하는 자는 인욕(人欲)을 따라 돌아올 줄 모르며, 나약한 자는 남의 아래가 되기를 좋아하고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문을 좋아함은 지(智)가 아니나 족히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고, 힘써 행함은 인(仁)이 아니나 족히 사사로움을 잊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앎은 용(勇)이 아니나 족히 나약함을 일으킬 수 있다.⁵⁸⁾ 그래서 ‘지(智)·인(仁)·용(勇)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거나 배워서 알거나 힘써서 아는 것은 안다는 자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또 편안히 하여 행하거나 이롭게 하여 행하거나 힘써 강하게 하여 행하거나 공(功)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55) 앞의 책, 20章

“天下之達道 五 所以行之者 三曰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

56) 앞의 책, 20章 참조

57) 앞의 책, 20장, “好學 近乎知 力行 近乎仁 知恥 近乎勇”

58) 앞의 책, 20章, 朱子註(呂氏의 말) 참조

마찬가지다.⁵⁹⁾

2. 외향적 관점에서의 誠

외향적 관점에서의 성관(誠觀)은 자신의 공부와 수양이 잘 이루어진 후에,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道를 알고 이를 지켜 나가려면, 모든 일을 반드시 자신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곳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순서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순리이며, 일의 순서이기도 하다. 정치의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중용』에 “정치를 함이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되 몸으로써 하고, 몸을 닦되 道로써 하고, 道를 닦되 인(仁)으로써 해야 한다”⁶⁰⁾고 한다. 여기서 사람이란 어진 신하를 말하고, 몸이란 군주의 몸을 가리킨다. 道는 천하의 달도(達道)이고, 인(仁)은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으로 사람이 얻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선(善)의 으뜸이다. 군주가 정사를 하는 것이 사람을 얻음에 있고, 사람을 취하는 법은 또 몸을 닦음에 있기 때문에, 능히 그 몸을 어질게(仁) 하면 훌륭한 군주가 있고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정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⁶¹⁾ 그래서 “군자는 자신의 덕을 닦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자신의 덕을 닦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알 것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을 수 없다.”⁶²⁾ 인(仁)이란 인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행동을 하는 데는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의(義)란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알맞은 행동을 하는 데는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어진 사람을 존경함에도 정도에 따라 차이나 차등(差等)이 있다. 예(禮)는 바로 이러한 차이와 차등에서 생겨나

59) 앞의 책, 20章 참조

60) 앞의 책, 20章, “故爲政在人 取人以身 修身以道 修道以仁”

61) 앞의 책, 20章, 朱子註 참조

62) 앞의 책, 20章

“故 君子 不可以不修身 思修身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不知人 思知人 不可以不知天”

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군자들은 먼저 자기의 몸을 닦아야 하고, 자기의 몸을 닦으려 하는 사람은 먼저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려 한다면 먼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또 하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한다. 하늘이란 우주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도를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어버이에 대한 효(孝)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엔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다면 수도나 효(孝) 또한 무의미하다.

『중용』에 아랫자리에 있으면서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한다. 윗사람의 신임을 받는 데는 道가 있는데, 친구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신용을 얻는 데는 道가 있다. 어버이에게 효순(孝順)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한다. 어버이를 순하게 하는 데는 도가 있다. 자신을 반성하여 성실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어버이에게 효순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는 道가 있다. 선(善)을 밝히어 알지 못하면, 자기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⁶³⁾ 이렇게 자신을 성실하게 하면 타인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 천지가 하나가 되어 천지화육을 도울 수 있다.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라야 자기의 性을 다할 수 있다. 자기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만물의 性을 다할 수 있고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⁶⁴⁾고 하였다. 여기서 그 性을 다한다는 것은 인욕(人欲)의 사사로움을 없애고, 나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천명을 살피고 실천해서 크고 작고 정밀하고 거친 것이 털끝만큼이라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⁶⁵⁾ 性을 다할 수 있으

63) 앞의 책, 20章 참조

“在下位而不獲乎上 民不可得而治矣 獲乎上有道 不信乎朋友 不獲乎上矣 信乎朋友有道 不順乎親 不信乎朋友矣 順乎親有道 反諸身不誠 不順乎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64) 앞의 책, 22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化育 可以贊天地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65) 앞의 책, 22章, 朱子註 참조

“盡其性者 德無不實 故無人欲之私 而天命之在我者 察之由之 巨細精粗 無毫髮之

면 능히 다른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자신의 지극한 인(仁)의 실현이 타인의 생을 보살핌으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어 자각 실현케 하는 덕화(德化)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만물의 性을 다하면 궁극적으로 하늘의 이치까지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 “그 다음은 일편(一偏)의 일이라도 지극히 함이니, 일편의 일에도 능히 성실할 수 있다. 성실하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동하고, 동하면 변하고, 변하면 남을 교화할 것이니, 오직 천하에서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라야 남을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⁶⁶⁾라고 하였다. 성실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소홀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만 비로소 큰일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사람들 또한 교화시킬 수 있다. 감언이설로 한 순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거기엔 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3가지 달덕(達德)을 알면, 자기의 덕을 닦을 줄을 알고, 자기의 덕을 닦을 줄을 알면 사람을 다스릴 줄을 알고, 사람을 다스릴 줄을 알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줄을 안다.⁶⁷⁾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용』은 구경(九經, 9가지 뒤편한 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尊賢), 아버지를 어버이로 받드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체찰(體察)하는 것(體君臣), 모든 서민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백공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의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柔遠人), 제후들을 은혜롭게 하는 것(懷諸侯) 등이다.⁶⁸⁾ 구경(九經)의 효험은, “자신의 몸을 닦으면 道가 서고, 어진 사람을 높이면 의혹하지 않고, 아버지를 어버이로 받들면 제부(諸父)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고,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하지 않고,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체찰(體察)하면 선비들의 보답하는 예(禮)가 중하고, 모든 서민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들이 권장하고, 백공을 오게 하면 재물을 쓰는

不盡也”

66) 앞의 책, 23章

“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惟天下至誠 爲能化”

67) 앞의 책, 20章 참조

68) 앞의 책, 20章 참조

것이 풍족하고, 먼 지방의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면 사방이 돌아오고, 제후를 은혜롭게 하면 천하가 두려워한다”⁶⁹⁾는 것이다. 깨끗하게 목욕 재계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며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곧 몸을 닦는 길이며, 아첨하는 소인을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화보다는 덕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김은 어진 이를 권면(勸勉)하고 높여 경제적인 대우를 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길이며, 여러 부하 관속들에게 고루 일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대신들을 권면하는 길이며 성실과 믿음으로 대하며 또한 대우를 좋게 하면 관리들이 성의껏 일하게 하는 지름길이며, 때를 맞추어 일을 시키고 나라의 세금을 가벼이 함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며, 잘 살피고 시험하며 좋은 대우를 함은 공인(工人) 즉, 기술자들에게 힘을 주는 길이며, 가는 사람을 정중하게 환송하고 오는 이를 환영하며 선한 사람을 칭송해 주고 부족한 사람을 이해하여 주는 것이 객지 사람들을 보살피는 길이며, 끊어진 대를 이어주며 망해 가는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며 분란과 위급을 잘 해결하고 내리는 물건은 좋은 것으로 하고 공물은 가벼운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 제후들을 스스로 따르게 하는 길이다.⁷⁰⁾ 이 구경(九經)을 행하는 길은 하나인데,⁷¹⁾ 하나라는 것은 곧 誠이다.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함이 있으면, 이 구경(九經)이 다 헛된 글이 될 것이다.⁷²⁾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덕목이며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69) 앞의 책, 20章

“修身則道立 尊賢則不惑 親親則諸父昆弟不怨 敬大臣則不眩 體君臣則士之報禮重 不庶民則百姓勸 來百工則財用足 柔遠人則四方歸之 懷諸侯則天下畏之”

70) 앞의 책, 20章 참조

71) 앞의 책, 20章 참조

72) 앞의 책, 20章 참조

IV. 대순사상의 誠觀

1. 내향적 관점에서의 誠

1) 誠·敬·信의 상관관계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3요체로 제시하고 있는 성(誠)·경(敬)·신(信)에 대한 의미와 이들 용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중용』에서는 ‘誠 그 자체는 하늘의 道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誠之)은 사람의 道’라고 하여, 誠을 우주만물의 생성과 존재근거이자 인도(人道)의 당위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誠은 敬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경건함(敬)은 방자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誠은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⁷³⁾ 誠은 단지 가득 차 있는 것이며, 敬은 단지 경외하는 것이다.⁷⁴⁾ 그래서 망령되고 기만하면 誠하지 못하게 되고, 게으르고 방자하면 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誠과 敬의 구별이다.⁷⁵⁾ 정자(程子)는 ‘한결같이 집중하는 것을 敬이라 하고, 한결같음을 誠이라 한다’고 하여, 敬이란 힘써서 공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⁷⁶⁾ 또 주자는 誠과 信을 구별하여, 誠이란 저절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信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誠은 하늘의 道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인의 믿음직함(信)이다. 만약 평범한 사람의 信이라면 단지 信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誠이라고 할 수는 없다. 誠은 저절로 그렇게 거짓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물은 단지 물일 뿐이고, 불은 단지 불일 뿐이다.⁷⁷⁾ 또 『중용』에서 ‘誠은 하늘의 道이다’라고 말한 것이 誠이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라고 말한 것은 信이다. 信은 誠을 다할 수 없으니, 마치 사랑함(愛)이 인자함(仁)을 다

73) 『朱子語類』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참조, “敬是不放肆底意思 誠是不欺妄底意思”

74) 앞의 책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참조, “誠只是一箇實 敬只是一箇畏”

75) 앞의 책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참조
“妄誕欺詐爲不誠 怠惰放肆爲不敬 此誠敬之別”

76) 앞의 책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참조
“程子曰 ‘主一之謂敬 一者之謂誠 敬尙是着力’”

77) 앞의 책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참조
“誠是自然底實 信是人做底實 故曰 誠者 天之道 這是聖人之信 若衆人之信 只可喚做誠 誠是自然無妄之謂 如水只是水 火只是火”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성인은 그렇게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⁷⁸⁾

대순사상에서는 誠을 정의하기를,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道라는 경지에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統率)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룬다”⁷⁹⁾라고 하였다. 心은 사람의 지각이며, 心은 사람 몸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誠은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어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敬을 정의하기를, “敬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敬이라 한다”⁸⁰⁾고 하였다. 信을 정의하기를,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하지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⁸¹⁾고 하였다. 즉, 信은 誠을 인위적으로 이루기 위한 마음과 태도인 것이다.

『전경』에 ‘誠을 지극히 하라’ 하였으니 誠의 소귀(所貴)함을 깨달아 봉행(奉行)해야 한다.⁸²⁾ 誠으로써 받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상제님이다. 그래서 誠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⁸³⁾

78) 앞의 책 上, 권6, 「性理3·仁義禮智等名義」

“中庸說 誠者 天之道也 便是誠 若誠之者 人之道也 便是信 信不足以盡誠 猶愛不足以盡仁 上是 下不是”

79) 「대순진리회요람」, 16쪽

80) 앞의 책, 16쪽

81) 앞의 책, 16-7쪽

82) 「대순지침」, 51쪽

83) 앞의 책, 51-52쪽

이것이 유교사상과 대순사상과의 차이점이 된다. 유교사상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반면, 대순사상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敬)은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 하였으니, 도인들은 상제님에 대하여(對越上帝) 영원히 모시는(永侍) 정신을 마음에 정성껏 간직하여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拳拳服膺). 이렇게 상제님에 대해서 지성으로 봉축함(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는 것을 敬이라 한다. 敬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이다.⁸⁴⁾ 신(信)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하자.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전경』에 ‘능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 하였으니⁸⁵⁾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기자신을 크게 이루기(自我大成)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⁸⁶⁾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한마디로 誠은 마음을 속이지(欺心) 않아야 하며, 敬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信)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⁸⁷⁾

2) 誠과 修道

『대순지침』은 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 성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중용』에 ‘誠 자체는 하늘의 道요, 誠 하고자 함은 사람의 道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극한 誠으로 바르게 도닥기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⁸⁾ 다시 말해서 誠을 수도의 근본으로

84) 앞의 책, 52쪽 참조

85) 『전경』, 교법 2장 45절

86) 『대순지침』, 53쪽 참조

87) 앞의 책, 54쪽 참조

88) 앞의 책, 41쪽 참조

삼아야 하며, 도통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誠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마음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⁸⁹⁾ 『전경』에도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이니 비록 부자와 형제간이라도 함부로 의지하지 말지어라”⁹⁰⁾라고 하여, 수도와 공부는 남의 힘을 빌려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성으로만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자신의 정성(自誠)으로 이루워 놓은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신(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며,⁹¹⁾ 참된 성품(性品)을 살펴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진다고 한다.⁹²⁾ 본성은 만물의 근원이지만 품수 받은 기운은 맑거나 흐린 차이가 있다. 그런 까닭에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된다. 하늘의 명령은 만물이 함께 부여받았지만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번갈아 바뀌며 한결같지 않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⁹³⁾ 그래서 인간은 기질을 닦아 깨끗이 하여 마음을 밝아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정성이 지극하여 사사와 거짓된 것이 전혀 없는 자는 천하의 화(禍)와 복(福)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순사상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신을 속이는 것이고,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이는 것이라 하여 무자기(無自欺)를 강조하고 있다.⁹⁴⁾ 결과적으로 誠은 무자기에서 출발하며, 무자기는 수도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

무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언행을 취하는 것이다. 먼저 마음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더라도 남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이 남들을 속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귀와 신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지의 귀와 신은 인간세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⁹⁵⁾ 또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樞機)이

89) 앞의 책, 41쪽 참조

90) 『전경』, 교법 1장 7절

91) 『대순지침』, 41-2쪽 참조

92) 앞의 책, 75쪽

93) 『朱子語類』, 上, 권4, 「性理1·人物之性, 氣質之性」 참조

94) 『대순지침』, 42쪽 참조

며 문호(門戶)이며 도로(道路)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가고 하는 것은 신이다”⁹⁶라고 하였듯이, 귀신은 인간의 마음속을 출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훈회(訓誨)의 첫 번째 항목도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음은 한 몸을 주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私心)이 있다.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을 말하며, 사심(私心)은 물욕(物慾)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을 말한다. 본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된다. 그래서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아야 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⁹⁷

신명(神明)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마음의 옳고 그름에 따라 인간의 화(禍)·복(福)을 결정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전경」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고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 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

95) 「전경」, 공사 3장 40절 참조, “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

96) 앞의 책,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97) 「대순진리회요람」, 18-9쪽 참조

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⁹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명은 인간의 불성(不誠)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고 그에 따라 심판한다. 이 경우 신명은 앞서 말한 귀신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며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⁹⁹⁾고 하였다. 여기서도 신명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간이 항상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도 암시되어 있다. 보상이라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복(福)을 의미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에 이르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한다.¹⁰⁰⁾ 또 사곡(邪曲)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며,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¹⁰¹⁾ 그래서 인간은 사곡되지 않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정직한 자는 신명의 보호를 받고 하늘도 두려워 할 것이다. 무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언행이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이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지만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게 된다.¹⁰²⁾ 또 『전경』에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98) 『전경』, 행록 1장 29절

99) 앞의 책, 교법 1장 29절

100) 앞의 책, 교법 1장 21절 참조

101) 앞의 책, 교법 3장 24절 참조

102) 앞의 책, 교법 1장 11절 참조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무자기를 말함이다.¹⁰³⁾

이렇게 무자기는 수도와 공부의 근본이 된다. 수도(修道)는 심신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상제님을 영원히 받드는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해야 한다.¹⁰⁴⁾ 앞서 언급했듯이 대순사상에서의 誠은 유교와는 달리 신앙의 대상으로 받드는데 있어 근본적인 정신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誠은 신앙의 대상인 상제님을 받드는 것뿐만이 아니다. 수도자 자신의 수도를 위해서 주문 봉송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 誠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이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은 불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¹⁰⁵⁾라고 하였고, “사람마다 그 닭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¹⁰⁶⁾라고 말씀하셨다. 지극 정성을 다해 공부하면 반드시 신명이 인간을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명은 인간을 보호하지 않고 그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¹⁰⁷⁾고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자는 곧 성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며,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상제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여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다.¹⁰⁸⁾

103) 「대순지침」, 24쪽 참조

“상제께서는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전경」, 교운 1장 36절)

104)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105) 「전경」, 교운 1장 63절

106) 앞의 책, 교법 2장 17절

107) 앞의 책, 교법 2장 22절

3) 誠과 道通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목적은 도통(道通)이며, 목표는 도통군자(道通君子)에 이르는 것이다. 도통군자란 망령되지 않고 사사로움이 없어 힘쓰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道에 맞으며, 하늘의 이치 그 자체로서 천도(天道)인 誠을 갖춘 사람이다. 『대순진리회요람』에 무자기를 근본으로 인간 본래의 청정무구한 본성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하고 자기자신의 기질을 깨끗이 하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힘써 닦고 정성에 정성을 다하여, 道가 곧 나요 내가 곧 道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道에 통하게 되면,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일이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영통(靈通) 또는 도통(道通)이라고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¹⁰⁹⁾ 이러한 수도과정을 통해 도통을 이룬 사람이 바로 도통군자이다. 도통은 인간 자신의 수도와 공부로 가능하다.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도통을 받을 수 없다. 또 도통은 어느 누가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자기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다.¹¹⁰⁾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르게 된다.¹¹¹⁾

그렇다면 도통의 판단은 누가 내리고 결정하는가? 『전경』에 상제께서는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¹¹²⁾, 또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의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¹¹³⁾라고 말씀

108) 앞의 책, 권지 1장 11절 참조

109)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110) 『대순지침』, 37-8쪽 참조

111) 앞의 책, 28쪽 참조

112) 『전경』, 교운 1장 33절

113) 앞의 책, 교운 1장 41절

하셨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도통은 인간 스스로 또는 타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인간 개개인의 닻은 바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또 상제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¹¹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운수를 정한다는 것은 도를 닦아 도통함으로써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운수를 받는다는 것은 도통했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심 여하에 달려 있다.

2. 외향적 관점에서의 誠

誠은 실제이고 예(禮)는 형식적인 것이다.¹¹⁵⁾ 誠이 존재하지 않는 禮나 禮가 존재하지 않는 誠은 무의미하다. 곧 禮는 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禮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일생동안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起居動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 주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것을 이른다. 도덕과 인의(仁義)도 禮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풍속도 禮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는다. 부자 형제도 禮가 아니면 윤리가 정립되지 않는다. 스승을 섬기고 학문에 힘쓰는 일도 禮가 아니면 바른 수업(受業)이 될 수 없다. 군률(軍律)을 세우고 관직에 있어서 법을 행하는 것도 禮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 조상을 받들고神明(神明) 앞에 치성을 드리는 일에도 정성의 禮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념(邪念)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¹¹⁶⁾ 이렇게 禮는 평범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꼭 알맞아야(敵中) 위의(威儀)가 서고 질서가 이루어져 화합의 바탕이 된다.¹¹⁷⁾ 誠과 禮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버이에 대한 효(孝)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사회, 국가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가정화목을 이룩하고, 이웃과는 상부상조로 화합하고, 사회 도덕을 준행하고, 국법을 준수

114) 앞의 책, 교법 2장 37절

115) 「論語」, 「八佾」 참조

116) 「대순지침」, 68-9쪽 참조

117) 앞의 책, 69쪽 참조

하며,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다. 곧 남을 잘되게 함은 상생대도의 기본원리이자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 된다.¹¹⁸⁾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성실성이 기본전제가 된다. 나의 마음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 타인의 마음 또한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포덕과 교화를 위한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외향적 관점에서의 誠은 곧 포덕과 교화가 그 중심이 된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과 언행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써 남에게 원한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¹¹⁹⁾라고 하였다.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다. 즉,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¹²⁰⁾ 이렇게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 되게 함으로써 해원상생 대도의 윤리를 실천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해원(解冤)은 척(慝)을 푸는 일이다. 척을 맺는 것도 아니며,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음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된다. 양쪽의 척이 풀려야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될 수 있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합·단결·상부상조해야 한다.¹²¹⁾ 이러한 해원상생·보은상생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바로 포덕이다. 포덕은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이다.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

118) 「대순진리회요람」, 20쪽 참조

119) 「전경」, 교법 2장 44절

120) 「대순진리회요람」, 21쪽 참조

121) 「대순지침」, 27쪽 참조

다.122)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게 되면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게 된다.¹²³⁾ 그러므로 항상 언행을 바르게 하고 언행이 일치되게 하여 언행으로써 남에게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 또한 포덕은 진리만을 전하되 흑세무민할 소지를 삼가야 한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말 재주 보다 행동과 처신으로써 상대를 감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¹²⁴⁾ 『전경』에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¹²⁵⁾고 하셨으니 무자기(無自欺)를 실천하여야 한다. 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시국을 논하여 민심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되며, 道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道에서 시한부를 운운해서도 안 된다.¹²⁶⁾ 운수나 도통에 시한부가 있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자멸행위이며,¹²⁷⁾ 사이비 종교로 내몰려 지탄받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²⁸⁾ 상생윤리의 실천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은혜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고, 저버림이란 잊고 배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教) 포덕(布德)으로써 제도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제도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은

122) 앞의 책, 19쪽 참조

123) 앞의 책, 27쪽 참조

124) 앞의 책, 76-78쪽 참조

125) 『전경』, 교운 1장 36절 참조

126) 『대순지침』, 24쪽 참조

127) 앞의 책, 38쪽 참조

128) 앞의 책, 54쪽 참조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여야 한다. 또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은(親恩)에 보답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수신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¹²⁹⁾

결국 마음을 속이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척을 짓지 않음으로써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짐으로써 화목할 것이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일이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¹³⁰⁾ 그러기 때문에 상제님의 광구천하·광제창생의 유지를 옹계 받들어 덕화 손상이 없도록 가정화목·사회화합·국가봉사에 성·충을 다하여 종교 본연의 인간완성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¹³¹⁾

V. 誠의 현대적 意義

誠은 우주만물의 존재근거이자 본질로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당위적 규범이다. 우주만물의 존재근거인 誠이 없다면, 우주의 질서와 일관성이 파괴되어 우주전체에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질서도 문란해질 것이다.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기후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인류가 우주질서의 근원인 誠이 아닌 불성(不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誠은 우주만물의 끝과 시작이다. 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만물은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誠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이다. 즉, 誠은 인간에게 도덕적·윤리적 규범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誠은 먼저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남과 대면해서도 당당하며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또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誠은 言(말씀 언)과 成(이룰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을 그 의미대로

129) 앞의 책, 50쪽 참조

130) 앞의 책, 43쪽 참조

131) 앞의 책, 82쪽 참조

이룬다'는 의미가 된다. 곧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단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언행일치를 강조한 것이다. 誠은 바른 언행, 언행일치를 의미한다. 사람이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 말은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하며 항상 남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그 상황에 맞추어 말을 바꾸는 것은 타인에게 불신의 벽만 높일 따름이다. 이렇게 말은 행동과 일치해야 하며, 그 말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언행이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 정성을 다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誠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誠은 현대사회에 있어 인간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誠은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례로 미국의 학자 블레인 리(Blaine Lee)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지도력을 3가지, 강압적 지도력·실리적 지도력·원칙중심의 지도력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¹³²⁾ 첫째, 강압적 지도력은 두려움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압적 지도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제는 강압적 지도력을 사용하는 순간에만 가능하다. 위협을 그치면 상대는 더 이상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지시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방식을 선택할 경우,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강압적 지도력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런 지도력에 분노하여 저항을 하거나 꾀방을 놓을 수도 있다. 둘째, 실리적 지도력은 쌍방의 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쌍방에게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결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대신 상대방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더 좋은 조

132) Blaine Lee(장성민 옮김), *지도력의 원칙(The Power Principle)* (서울: 김영사 1999), 36-9쪽 참조

건을 제시받으면 쌍방의 관계가 언제라도 단절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리적 지도력은 실제로 유효하다. 그러나 이 지도력으로는 단기적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실리적 지도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 동안에는 거래관계가 지속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든 거래가 더 이상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관계는 곧 깨져버리거나 강압적 지도력의 관계로 바뀐다. 이렇게 실리적 지도력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원칙중심의 지도력은 타인들이 나에게 갖는 존경심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존경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런 지도력은 아주 장기적인 영향력, 즉 그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 간에는 신뢰감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은 상호의존과 깊은 존경심, 나아가 시너지로 이어진다. 쌍방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함께 선택하며 결정을 내린다. 원칙중심의 지도력에도 통제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통제는 내적인 것 즉 자기 절제로 나타난다. 원칙중심의 지도력은 또한 윤리적인 행위를 낳는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려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도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원칙중심의 지도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존경심이 바로 지도력이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화려한 외모나 처세술, 능숙한 화술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다. 변화는 보다 심오하고 내면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심오하고 내면적인 것이 바로 誠인 것이다.

성실은 말과 느낌과 사고와 행동을 맞추고자 노력함으로써 그것들을 하나로 일치시킨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말·감정·생각과 행동을 일치시

키려는 것이 곧 성실성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만하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다른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 속이려는 욕망을 가지지도 않고, 악의나 교활함도 없다. 남을 속이고, 남을 이기고, 남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하지 않는다. 성실성이 커질수록 지도력도 커진다. 성실한 사람은 인격과 능률 모두에서 비롯된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¹³³⁾ 이렇게 존경받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관성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련의 신념과 가치들로부터 나오는 사고와 행동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인성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변덕스럽지도 일시적이지도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수용력과 인내, 사랑, 규율에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하는 권모술수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신조로 삼고 있는 일련의 가치, 개인적인 규범이나 인격에 기초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일관성을 가질 경우 우리의 영향력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게 된다.¹³⁴⁾

VI. 결론

誠은 만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性을 어김없이 성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誠이 없으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4계절의 운행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는 것, 해와 달이 번갈아 운행하는 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든 자연현상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지극히 참되어 허망함이 없는 것을 誠이라 한다. 자연의 세계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어김없이 진실하게 실현되는데, 인간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간은 성실해지려고 노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誠을 천도(天道) 또는 천리(天理)라 하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을 인도(人道)

133) 앞의 책, 223쪽 참조

134) 앞의 책, 229쪽

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誠을 향한 수도와 공부(無自欺)로부터 출발한다. 무자기란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마음이 인간의 몸을 주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¹³⁵⁾ 이렇게 대순사상에서 誠은 도통진경을 위한 근본조건이 되고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대순사상과 유교사상의 성관(誠觀)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명백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유교사상에서는 誠을 이루는데 그 신앙적 대상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인간 자신의 수양과 공부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 誠은 인간 자신의 수도와 공부뿐만 아니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님을 신앙적 대상으로 받드는데 있어서도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순사상에서 誠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도의 3요체로 제시되는 것이다.

대순사상과 유교사상의 차이점으로서 도통을 예로 들 수 있다. 『전경』에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례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道를 닦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유교와 불교의 경우 그 한계로 말미암아 도통이 별로 나지 않았다. 상제계서는 상제의 말씀에 따라 道를 바르게 닦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통의 길을 열어 주시므로써 도통을 받지 못해 원한을 갖는 자가 없게 하셨다. 즉, 상제계서는 유교와 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셨다. 그리고 도통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유교사상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반면, 대순사상에서는 상제님의 명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신명(神明)을 그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즉, 신명(神明)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마음의 옳고 그름에 따라 인간의 화(禍)·복(福)을 결정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신명은 인간의 불성(不誠)

135) 「대순지침」, 76쪽 참조, “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고 그에 따라 심판한다.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목적은 도통(道通)이며, 목표는 도통군자(道通君子)에 이르는 것이다. 도통군자란 망령되지 않고 사사로움이 없어 힘쓰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道에 맞으며, 하늘의 이치 그 자체로서 천도(天道)인 誠을 갖춘 사람이다. 도통군자는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도에 통하고,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일이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인간은 지극히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실은 도통의 판단기준이 된다.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中庸』 『孟子』
『朱子大全』 『朱子語類』 『中庸或問』
金勝惠, 『原始儒家』 (서울: 민음사 1990)
金哲運, 『《大學》의 平天下思想에 관한 研究』—儒家 政治思想의 實踐的
展開—(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12)
李南久, 『誠의 政治理念化的 意義에 關한 一研究(前)』, 『안동교육대학 논
문집』 (안동교육대학, 1971)
張源穆, 『성리학의 <理一分殊> 체계』—주희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
학원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8)
趙明彙, 『中庸思想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Blaine Lee(장성민 옮김), 『지도력의 원칙(The Power Principle)』 (서울: 김영
사 1999)
黎靖德 編(허택·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1·2권(서울: 창계 1998)
오하마 아키라(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 (서울: 예문서원 1997)